

새총리 후보 김항식

고향 장성 원황룡 마을·모교 광주일고 표정

“황룡이 승천, 마을 이름대로 이뤄졌다”

“어릴적 늘 모범생...청문회 통과 무난”

후보 지명일, 공교롭게 생일 ‘큰 선물’

“우리 마을 출신이 총리가 된다니 마을 이름처럼 황룡이 승천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장성 출신 김항식(62) 감사원장을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6일 오후, 그의 고향인 장성군 황룡면 원황룡(元黃龍)마을 주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들은 사상 첫 전남 출신 총리가 자신들의 마을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 데 모여 이야기 꽃을 피웠다. 농가 곳곳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김 내정자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만 항상 모범적인 아이였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을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김항식 감사원장의 총리 후보 내정을 축하했다.

주민들 대다수는 현재 감사원장인 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인사청문

회를 거쳐 감사원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마을 이장 문형식(51)씨는 “최근 총리 내정자가 도덕성 검증에 실패한 뒤 새롭게 내정된 인물인데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장성 출신이면서 광주지법 법원장을 지냈을 정도로 광주·전남과 인연이 깊은 김 내정자가 총리가 돼 지역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했다.

김 내정자의 모교인 광주일고 역시 이날 총리 내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

다. 광주일고 총동창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 내정자의 소식을 알렸다. 광주일고 김병재 교장은 “김 내정자가 총리가 된다면 사상 첫 광주일고 출신 총리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감사원장이 새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16일이 마침 김 후보자의 생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김 후보자는 음력으로 1948년 8월9일생이기 때문에 이날이 생일이어서 생일날 큰 선물을 받은 셈이다.

장성=김홍기기자 kimho@중부취재본부=김홍기기자 yongho@



장성 출신 김항식(62) 감사원장이 새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16일 그의 고향인 황룡면 원황룡마을 주민들이 재가(齋家)에 모여 축하하고 있다. /장성=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후반기 국정 ‘공정 총리’ 적임 판단 민주당과 사전교감...野도 우호적

■ 김항식 발탁 배경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항식 감사원장을 발탁한 것은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8·8 개각에서 신임 총리로 지명됐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낙마한 지 18일 만에 이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인선하면서 공정사회 개념에 적합한 인물을 물색해 왔다.

40대의 김 전 지사 발탁이 세대교체형 인선이었던 이번에는 공정사회 가치에 맞는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다시 도덕적 하자가 드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자칫 공정사회가 추동력을 잃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타격을 받아 레임덕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올해 62세인 김 원장은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조계 내부에서 신망이 높고, 197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정통 법관 코스를 밟아 도덕성과 청렴함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도덕성 기준에 부합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 장성 출신으로 정치적 색깔이 얇은 데다 감사원장에 임명될 때에도 특별한 어려움 없

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여러 핵심부는 총리 내정을 앞두고 민주당과도 사전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정국에 ‘데탕트’ 무드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5일 총리 및 장관 인선과 관련해 “국정 공백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 청와대가 납득할 만한 인사를 하면 발목잡지 않고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또한, 차기 대권 주자를 키우기보다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무형 총리를 택한 점은 친박 진영을 자극하지 않는 등 후반기 당내 화합을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과 친박 진영에서는 김 원장의 발탁에 우호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김 총리 후보자가 지난 2008년 7월 감사원장으로 내정돼 2년 넘게 업무를 수행,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데도 어려움이 없는데다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 후보라는 점에서 지역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총리 후보자가 거의 모든 공직을 법조계에서 보냈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 외교, 사회 분야 등을 포함, 조정해야 하는 총리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지법원장·대법관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

■ 김항식 프로필



총리후보 내정자 김항식 프로필

- 출생 1948년 8월 9일 (전라남도 장성)
- 소속 감사원장
- 학력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학 학사, 미주대 법학 석사

주요경력

1972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1974.09~1977.0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1.09~1983.0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5.03~1988.07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9.04~1991.02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02~1993.03 법원행정처법정국 국장
1996.02~1997.02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1997.02~2000.02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
2000.02~2004.0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00.02~2003.0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4 광주지방법원 원장
2005.02~2005.11 법원행정처 차장
2005~2008.09 대법원 대법관
2008.09~제21대 감사원 원장
2009.10~ 아시아감사원장회의 사무총장

김항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 9월 감사원장에 임명된 이후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측면에서 뒷받침해왔다.

김 원장은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1974년 9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정통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아 왔다.

서울고법판사와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광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친 그는 2005년 11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그는 오랜 법관 생활 기간 풍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치주의 실현에 전념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특히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등 사회 정의 실현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 국민복에 기여하는 감사’를 감사원 운영 기조로 내걸고 공직 기강 확립 등에 초점을 맞춰 왔다.

또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감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관계를 밝혀내는데 주력한 것은 물론 취약계층과 서민 생활을 챙기는 ‘서민 밀착형 감사’를 제시, 호평을 받았다.

한편, 그는 판사 재직 당시 형사재판에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해 왔다. 다만 공안사건 등에서는 보수 성향을 보여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예술품 감상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차성은(60)씨와 1남 1녀.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항식 가계 누나 총장·셋째 형 장성군수...4남 3녀 모두 각계 두각

김항식 감사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김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 동산대 총장, 형인 고(故) 김홍식 장성군수 등 각계의 거물을 배출한 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장성군 황룡면 원황룡마을에서 한학자 아버지 김원만 응(작고)과 나이지(“) 여자 사이에 4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 김원만 응은 장성향교 전교를 7차례나 지낸 정도로 학식과 덕망이 높았던 유학자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광주지법원장 시절 쓴 ‘저산동진’이라는 책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어린 시절 거지가 구걸하러 대문간을 들어설 때 ‘어머니, 가지 왔어요’라고 소리쳤더니, 쌀 한 움큼을 그릇에 담아 나오시며

나직하게 ‘다음부터는 손님 오셨다고 해라’고 했던 일이 평생 기억에 남는다”고 적었다.

이 같은 부모의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이 지금까지 그에게 가장 교육이 됐을 것이라는 게 지인들의 설명이다.

교육열이 강했던 부모의 영향으로 김 후보자를 비롯한 4남3녀는 대부분 정계나 학계, 경계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의 큰 형으로 이미 작고한 김광식씨는 의사로서 전남교육위원회 부의장을 지냈으며, 김용역 전 광주시원(동산대학원장)의 선친이기도 하다.

둘째 형인 김항식은 농촌진흥청 차장과 한국육류수출협회 회장을 역임한 뒤,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선 상태다. CEO형 자치단체장으로 3선을 지낸

고 김홍식 장성군수가 셋째 형이다. 작고한 큰 누나도 평생을 교사로서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둘째 누나는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의 부인이다.

막내 누나인 김필식 동산대 총장은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을 맡고 있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인사다.

김 후보자와 다섯 살 터울인 김필식 동산대 총장은 유년 시절에 그를 업어서 키운 만큼 애정이 남달랐으나 소감을 묻는 언론의 인터뷰를 정중히 사양했다. 다만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총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대신했다.

김 후보자는 고시생 시절 당시 김필식 총장의 집이었던 ‘이장우 가옥’에서 공부했으며, 사법시험 합격소식도 이 곳에서 김 총장과 함께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김 후보자의 가족들은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사절했으며, 후보지명과 관련한 어떠한 평가나 소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조카인 김용역 전 광주시원일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주 선하고 정이 많은 분이시다”며 “총리 지명에 대한 평가나 소감은 적절치 않다”고 사양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본교 캠퍼스 전경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르심!

이환수이사장

광주바이블칼리지 신(편)입생 추가 모집

GWANGJU BIBL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학부 및 신대원(M.Div.)과정

1. 국내신학교 중 최고의 시설, 최적의 교육환경
- 400명 수용 생활관, 체육관, 체류(에메담), 식당, 도서관, 교수연구실, 개인지도실 각종 연구소, 수영장, 산책로
2. 최남 최고 수준의 교수진 - 선교, 치유, 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3. 최 단기간 학위과정 완성 - 대학 학부는 2년 대학원은 1년에 졸업
4. 대 교단 총회인준신학교 - 졸업생 전원 100% 목사안수, 선교사파출(책임진로지도)
5. Venture Spirit
- 전문성과 은사 그리고 Venture Spirit 을 가진 전문가(교수, 목사, 선교사)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 선교지역에 교회를 개척케 한 후 그곳에 GBC졸업생들을 심어준다.
6. 특수지역, 특수교회를 위한 맞춤형 신학교육
- 국내 도시 목회, 성목회 산골목회, 농어촌목회, 해외 선교별 중공선교, 몽골선교, 중앙아시아 선교, 일본선교, 베트남선교, 캄보디아선교, 태국선교, 인도선교, 파키스탄선교, 중동선교,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과 훈련 실시.
7.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학비
- 전교생 100%에게 장학 혜택이 가게하고 학생 본인 부담은 최소화
8. 해외교회 인턴십 제도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해외 교회와 지매결연을 맺고 해외 지매교회에 단기 인턴십을 보낸다. (단기해외 현장 학습 및 실습)
9. 해외 대학들과 지매결연을 맺고 매년 심포지엄 포럼, 선교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10. 복수 학위제 실시
- 모든 학위 과정의 절반은 국내 GBC에서, 나머지 절반은 해외 지매 학교에서 이수하고 학위는 양국에서 각각 준다. (한 과정 두개의 학위)

Th. M.(신학석사) 과정 개설

- 1년에 최단기 학위과정 완성 3개월 단위 학기에 8학점(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4학점) 이수하면 3학기에 졸업이수학점을 마치고 3개월간 논문완성해서 12개월에 학위 완성함.
- 최고의 교수진 선교, 치유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 학비 저렴 타 대학 학비의 1/2 내지 1/3
- 진로 보장 ① 이 과정에 입학하는 100% T/A(교육조교) 자격증을 수여하고 최대 6회까지 지도교수의 전공강의 1/2를 현장강의 함.
- ② 우수졸업생 해외 Ph. D. 과정유학을 보장하고 졸업생 전원 학부강의를 맡을 수 있는 기회부여.
- ③ 타 대학 출강 적극 추천
- ④ 수업시간: 2주1회(학생편에서 시간이 있을 때 수업시간 자유)

모집 안내 10명까지 인원 제한. 지원 분야(선교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입학 문의 학장 직접상담 ☎ 010-7413-1215, 061) 381-0000, 1365

세린사회교육원

- 웃음 치료(월 5만원)
- 텝스 영어(월 10만원)
- 영어 성경(월 10만원)
- 워십 찬양리더자 교육(월 7만원)

평생교육의 1번지

광주바이블칼리지 세린사회교육원
Gwangju Bibl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후원: Chemlee Lab, Corp.(U.S.A)

http://www.gjbc.kr
TEL: 061) 381-1365, 0000
FAX: 061) 381-1367